



攝
心
實
愛
慈
度
世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라-218 (동2-남구목로 158번)

東友會報

1994年(檀紀4327年) 11月21日 第168號(1)

明秀
英煥
黃朴
性主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2호

전화 : 733-3991~3

FAX : 733-3992

우편대체 012328-31-0525667

은행지로번호 7500891

東友長학회 설립 눈앞에...

창극 공연수익금 등 3億 4千萬원으로 이달중 設立 신청



▲동우장학회의 설립은 동국 1백주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7월 장학기금모금 창극공연 식후 축하연 모습

제 23회 東國人의 밤이 열립니다

10만 東國人이 한자리에 모여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東國의 영광을 다짐하는 제23회 동국인의 밤이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10만 동문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행운상품협찬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행사일시 : 1994년 12월 20일(화) 오후 6시30분
2. 장 소 : 소피텔 앰배서더호텔(장충동 소재) 2층 그랜드 볼룸
3. 회 비 : 2만원

※ 행운상품협찬등 의문사항은 本會사무국으로 (Tel. 733-3991~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東國大學校總同窓會

東友長학회, 東國發展의 새 轉機될 듯

임원선임, 정관 확정등 설립 준비 순조

10萬 동국인의 오랜 숙원사
업인 장학재단의 설립이 눈앞에
에 다가왔다.

本會 황명수 회장의 필생의
공야사업이기도 한 장학재단의
설립은 1백년의 역사를 앞둔
현시점에서 도약과 발전을
모토로 총동창회가 앞장서 모
교발전에 전력케 하는 뜻깊은
의미를 인식케 할 것이다.

東友獎學會로 명명될 장학
재단의 설립위해 가진 지난 10
일의 회장단회의에서도 장학
회의 명칭은 東友獎學會로
하고 이사 9명과 감사 2인 등 총
11명의 초대임원선임을 확정
장에 일임하고 정관을 마련하는
등 재단설립에 박차를 기렸다.

11월 20일 현재의 준비상황
을 보면 우선 설립자본에 있어
지난 7월 전국대학동창회 사
상 최초의 문화이벤트사업인
창극 「하늘에 편 녹두꽃」을 통
해 조성된 2억1,091만2,873원
과 기존에 운영되어온 1억2,
061만7,679원의 장학금, 그리고
회장단회의 직후 황명수회
장이 쾌척한 1천만원의 성금



▲ 사진은 지난 7월 창극공연에서
동 총3억4,153만552원을 기본
재산으로 확보 재단설립에 따
른 기초를 닦았다.

또한 임원구성에 있어서는
▲ 이시강에 황명수부회장을
비롯해 ▲ 유주형(57농학, 중
남방적 부회장), ▲ 박이주(61
정치·本會상임부회장), ▲ 안
재란(54국문·영석고 교장)
▲ 김동정(57법학·변호사)
▲ 박준형(63경제·신라교역
대표이사), ▲ 장장순(65법학·
한서통신 대표이사), ▲ 구자선

黃明秀회장 1천만원 쾌척

장학회 설립기금

本會 회장단회의가 지난 11
일 폐식회로 1층 별실에서
황명수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을
점검, 정관은 발기인들이 심
의끼기하고 발기인 선임은 회
장에게 일임키로 의결했다.

또한 일민회부에 있어 오는
12월로 미당서정주 선생 풀순
연을 동국문화인회와 공동개
최기로 하는등 본회운영에 따
른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한편 황명수회장은 이날 장
학재단설립에 따른 준비사항

을 보고받고 1천만원을 제단 설립기금으로 쾌척했다.

안동지부 총회가져

동창회안동지부에서는 馬東
輝(59경제) 회장을 비롯한 임
원진을 새로 선출하고 회칙을
개정했다.

안동문화회관에서 20여동문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를
통해 안동지부는 총동창회와
의 유대강화를 위해 회선을 다
할것을 결의했다.

신임 馬 회장은 취임사를 통
해 "지역동문전체를 총동창회
에 등록하고, 연회비를 일괄
납부하는 등 등을 통해 동문회
활성화에 전력하자"고 밀레
참가동문들로부터 뜨거운 박
수를 받았다.

황명수 회장들이 관리하는 모습
(81경원·태우주택 대표) ▲
박수천(77행정·새한종금 부
장) 등의 이사진과 ▲이기화
(59경제·회계사) ▲정자호
(62정경·금정상호신용금고
사장) 등의 감사진으로 구성되
어 있다.

지난 16일 이를 신임위원회
이 모여 빌기인 대회를 가진
本會는 이날중 설립허가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며
장학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전
동문을 대상으로 한 대내적인
기금확충모금운동을 전개해
명실상부한 민족사학·동국대
교학의 재도약에 앞장설 계획
이다.

未堂선생 八旬宴 개최

12월2일 동국문화인회와 本會 주최로

“미당 서정주선생 풀순잔치”
가 본회와 동국문화인회 공동
주최로 오는 12월2일 오후 6시
30분 삼성동소재 인터콘티넨
털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다.
다

각계 주요인사, 문화 예술
인, 언론인 등이 참석할 이날
행사는 초청자인사(미당 서정
주선생 기념사업회), 축사(각
계인사), 현장식, 악력보고,
미당 송시, 시로 염는 미당시
80년, 당시, 축수, 시진치 순
으로 2시간동안 진행될 예정

동국인의 밤 열린다

12월 20일 쏘피텔 엠배서더서

‘제23회 동국인의 밤’이 오
는 12월20일 오후 6시30분 장
충동 쏘피텔 엠배서더호텔 2
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해를 거듭해 갈수록 경향각
지의 많은 동문이 참석해 10만
동국인의 우의와 결속을 다지
고 내일의 영광을 다짐하며 모
교애와 동국인의 긍지를 드높
여온 큰 진진인 ‘동국인의 밤’
은 올 한해동안 사회각계에서
활약, 동국의 명예를 펼친 동
문들의 축하연과 함께 8번째
동국문화대상의 시상식도 겸
하게 된다.

이번 ‘동국인의 밤’은 황명
수회장을 비롯해 최형우내무
부장관, 김재기유선방송협회
장, 주주영수석부회장·정계
금융계, 재계 인사들 백발의
선배동문들로부터 신임동문까
지대동동결의 새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本會사무국은 전
국 2백50여 직장동우회등 각
급단위동창회와 임원진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행사의
일을 차지했다.

도교 여학생에 장학금 수여

채란장학회 안채란 동문이

안채란(54 국문·영석고등
학교 교장) 채란장학회장은
지난 8월 26일 오후 1시 티워호
텔 코리아기든에서 모교 여학
생 5명에게 3백만원의 장학금
을 수여했다.

송서구(62 철학) 부총장, 이
순용(58법학) 교수회장 및 김

영화분회사무국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장학금수
여식에서 안채란장은 인사말
을 통해 “사립학교를 설립하
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본인이 너무나 어
렵게 공부를 했고, 사학을 운
영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
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교
이 동국대학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는 애교심과 충정때문”이
라고 장학재단설립의 동기를
밝히고 덧붙여 “빠른 시일내
에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장학금
업의 활성화계획을 밝혔다.

이어진 수여식에서 장학금
을 전달받은 수혜자는 현재 모
교에 재학중인 김은경(국어교
육 3), 박은희(법학 3), 한혜
경(법학 2), 오현경(법학 2),
권순정(가정교육 3) 양 등 5명
이다.

東國人名錄은 여러분이 만듭니다

주위 동문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88년 동국인맥의 산기록이 될 동국인명록 제7집

이 발간됩니다. 보다 많은 동문의 보다 정확한

신상등재를 위해 주위의 동문 주소를 아래양식으

로 기입해 본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동문

님들의 협조가 동국발전의 초석이 될것입니다.

<보낼 곳>

110~300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

동국대 총동창회 사무국

성명	출입구분	직장및 직위	전화	자택주소	전화

가을 하늘 東國 함성도 드높다

동국인체육대회 전국 7개팀 참가, 열띤 경합

'제11회 동국인 체육대회'가 지난달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백여명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경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동창회장 은배생탈 영남동문 친선 체육대회'로 출발, '영·호남 체육대회'를 거쳐 지난해부터 규모를 확장시켜 올해 전국적 행사로 정착된 이번 체육대회에서 서울 총동창회, 무산지부, 대구지부, 보항지부, 지역개발대학원, 경주직할동창회 및 재직동문회 등 총 7개팀의 동문들과 대전, 충북지부의 임원들이 경기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배구, 줄다리기, 육상에서 승패에 관계없이 시종일관 회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성적으로 경기에 임했으며, 팔찌를 대회와 부부령기·사과기기대회 등도 함께열려 동문가족들의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이날 종합우승은 지역개발대학원에 들어갔으며 대구지부와 재직동문회에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한편 대회 하루전인 22일 저녁에는 '동국인 체육대회 전야제'가 경주 조선호텔에서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김영환本會事務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는 원로자객의 3백여 동문과 교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국민의례, 골프대회 시상



▲황명수 회장이 공제총 경주회장에게 대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식, 총동창회장 인사, 궁체홍 경주직할동창회장의 대회사, 오녹원재단이사장의 격려사, 민병천총장의 축사 등 1부행사와 2부 연회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사전행사로 오전 11시 부터 경주 조선컨트리클럽에

다양한 경기, 깊어가는 동문애

道 지부 창립후 첫 체육대회

충북지부 체육대회

충북지부(회장=최종태·61법학·청주문화방송상무이사)는 지난 9월 25일 청주 신하고 체육관에서 '제1회 동국 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동문 및 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개최된 이날 대회는 '큰 광명,

큰 지혜 큰힘으로 新東國 건설'을 슬로건으로 대회사, 안민동(국보제약회장) 청주지회장의 환영사, 김영환본회 사무국장의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진행된 체육대회에서는 배구, 족구, 페구, 풍선터 뜨리기, 등을 통해 동문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黃明秀(53정치) 本會 회장이 비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체육관을 찾아 1년만에 다시 만난 동문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黃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백주년 기념사업의 현황과 경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면서 내외의 의의와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었다.

이날 대회우승은 C조에게 돌아갔으며, 준우승과 3위는 B조와 A조가 각각 차지했다.

국악공연등 흥겨운 시간가져

黃明秀회장 격려금 전달

지역대학원 체육대회

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회장=이두철)는 지난 6일 울산군 실태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갖고 동문간의 우애를 증진시켰다.

本會 황명수회장을 비롯해 경주, 포항지부, 동문들과 울산지역 학부, 행정대학원 등

동문까지 참석한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경주캠퍼스 재학생들로 구성된 국악 공연등으로 흥을 돋웠고 배구등의 경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황회장은 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에 1백만원을, 모교 재학생들에게는 3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여 동문사기를 높였다.

이날 대회우승은 C조에게 돌아갔으며, 준우승과 3위는

B조와 A조가 각각 차지했다.

東國人名錄은 여러분이 만듭니다

각급단위 東友會의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지역별, 직장별, 학과별, 기별 각급단위 동우회는 총동창회 조직의 근간입니다. 오는 12월 발간을 목표로 한 동국인명록 제7집을 이러한 조직활동을 빠짐없이 수록하기 위해 동문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각급단위 조직의 회장이나 현황을 본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보낼곳>

110-300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 동국대총동창회

청·백팀으로 友誼다져

대전·충남체육대회

'제11회 대전·충남 동국인 체육대회'가 대전(회장=신성철·61영문·충남대교수) 회회 주최로 지난달 9일 대전동아 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동문 및 가족 110여명이 참

석한 이날 행사는 청백팀으로 나뉘어 죽구, 배구, 탁구, 오락게임 및 정기자랑 등을 진행하면서 동문간의 우의를 다졌다.

本會에서는 류주형수서부회장과 박태권부회장이 참석해 동문들을 격려했으며, 우승기와 부상은 청팀에 돌아갔다.

임관 30주 축하 및 정기총회

오는 29일 ROTC 총동문회 주최

ROTC총동문회(회장=김용선·63영문·남양전기(주) 대표이사)는 오는 29일 국방회관(삼각지 소재)에서 2주기임관 30주년 기념축하연을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지난해부터 임관 30주년을 맞는 기수의 후배들이 모든 행사를 주관해 치루기로한 임관 30주년 축하연은 금년 2기생(64년 졸업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3기생들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향사행사의 결과 1기부터 29기에 이르는 ROTC총동문 인명록을 펴낸 ROTC총동문회는 행사를 통해 상경하게 하는 동국의 풍토를 확실히

정립해 갈 것으로 보인다.

법정동우회 모임

법정동우회(회장=박동렬·78행정·국세청행정사무관)는 지난해 28일 엠버서더호텔에서 친목도모와 학교발전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황명수 本會회장, 박의주상 일부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동렬회장은 인사를 통해 "동창동우회의 행보에 보조를 맞춰 법정동우회도 모교발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정관계 '상위' 법조계 '중하위'

각대학 졸업생 사회 진출 평가결과

전국 131개 대학에 대한 부문별 평가는 바탕으로 대학의 순위를 결정해 본, 중앙일보의 기획기사가 지난 10월 연재되어 관심을 끌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지난 10월5일 미지박으로 연재된 졸업생의 사회진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차관급 행정공직자 배출 순위(80년대 이후)에서 20명을 기록한 모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에 이어 5위를 기록했고 ▲여대 국회 의원 배출에 있어서는 종43명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법조인에 있어서는 80년 이후 법원장, 검사장급이 상 배출인원이 1명에 불과 정·관계와 큰 불균형을 보였고 ▲상장사 대표이사(94년 6월

기준)는 30명으로 6위를 기록했다.

▲공인회계사는 108명으로 6위, ▲대고시(외무, 행정, 사법, 기술) 합격자는 (80~93년 합격자) 총22명(기술고시는 자료미비로 파악됨)을 기록 12위에 기록됐다.

이같은 평가는 가능케 한 중앙일보의 인물정보 DB는 총 6만21명을 (9월말 기준) 수록하고 있는데 이곳에 수록된 인원을 출신대학별로 나눈 결과 모교는 ▲정관계7위, ▲법조계 15위, ▲재계는 ▲언론계 7위, ▲학·교육계 13위, ▲문화계에는 2위로 평가됐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보면 정관계나 재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조계 진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동우회 명칭		연락주소·전화
회장	졸업구분	직장및 직위
총무	졸업구분	직장및 직위



文化훈장 鼓勵 李根三동문

▲李根三(52영문·서강대 교수, 연극인) 동문은 문화체육부가 10월 '문화의 날'을 맞아 선정한 제26회 대한민국 문화장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달 20일 오후3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잔치'에서 수상했다.

文化예술상 수상 李炯基동문

▲李炯基(교교수·56불교) 동문이 제26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그동안의 문단활동을 활동을 치하하기 위하여 문학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으로 지난달 20일 문예회관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잔치'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한편 李동문은 대한교육보험(주)의 출연으로 설립된 대신재단의 제2회 대선문학상(시부문) 수상자에 선정되어 오는 12월2일 오후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수상작품은 '죽지 않는 도시'로 李동문의 시세계를 대표하고 있다.

교수회 회장 再選 李淳容동문

▲李淳容(58법학) 동문은 지난 8월19일 선리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된 모교 교수회 정기총회에서 교수회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부회장에 廉俊根, 감사에 朴明姫교수가 선출되었다.

詩集 출판기념회 金貞煥동문

▲金貞煥(60국문) 동문은 93년 수필집 '거울나ipples을 밟으며'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4월25일 첫시집 '돌파의 대회'

를 발표, 이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지난 10월7일 동대부고 도서실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재구(52국문) 문예고문과 김영구(62경제·국회의원) 등문이 인사말을 전하고 송석구(62철학·교보 부총장) 등문이 축사를 발표하는 등 서성래(63농생·대봉어린이집원장) 등문을 비롯한 내외의 인사들이 참석해 상황을 이루었다.

金동문은 92년 '문예사조'를 통해 문학평론가로 등판했으며, 현재 동대부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장지연賞 수상

鄭雲耕동문

▲鄭雲耕(60국문·중앙일보 상무, 회번) 동문은 94년도 위암 장지연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10월 오후5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상식을 가졌다.

鄭동문은 권력의 횡포를 겸재하는 언론창당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아 이 상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 本校의 東友演説을 접풀중이다. 한편 장지연상은 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와 한국프레스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올해 5회째 수상자를 냈다.

각막은행 행장

金在基동문

▲金在基(60경제·한국중합유선방송총회장) 동문은 지난 8월23일 국내최초로 발족한 각막은행의 초대행장에 추대됐다.

江原개발원장 취임 吳鎮模동문

▲吳鎮模(61법학·본회 지도위원) 동문은 지난 8월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吳동문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전문위원, 국토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는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

회장, 모교 경영대학원 강사,

전국부동산종개업협회고문, 전국부동산연합회고문, 한·일 국토계획분야 한국측대표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편 모교발전위원회로 선임돼 충실향 활동을 하고 있다.

농촌살리기 감사파

金洋一동문

▲金洋一(63정치·경북매일前 총장) 동문은 지난 7월8일 열린 학술원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원으로 선출되었다.

검찰계 동문 이동

申相斗동문

▲申相斗(64법학, 本會부회장) 동문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것을 비롯해 검찰계 재직 동문들의 인사이동이 지난 9월에 있었다.

申부회장은 제2회 시사출신으로 서울지방경찰청, 남부 및 북부지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춘천지검, 검사장 및 부산고검차장검사를 거쳐 이번에 창원지검 검사장에 임명되었다.

이외에도 ▲徐鎮圭(71법학) 동문이 권력의 횡포를 겸재하는 언론창당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아 이 상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 本校의 東友演説을 접풀중이다. 한편 장지연상은 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와 한국프레스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올해 5회째 수상자를 냈다.

鄭동문은 권력의 횡포를 겸재하는 언론창당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아 이 상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 本校의 東友演説을 접풀중이다. 한편 장지연상은 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와 한국프레스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올해 5회째 수상자를 냈다.

21C 위원 위촉

鄭用吉동문

▲鄭用吉(67행정) 동문은 지난 8월12일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鄭동문은 모교 사회과학대학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선상규동문

▲선상규(60교과·72생) 동문은 지난달 21일 제32회 대한민국체육상(진흥부문)에 수상했다.

현재 한국체육진흥회 회장

을 맡고 있는 선진규동문은 생

활체육활성화, 중국연변 조선민족체육대회를 주최해 민간외교사절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공로로 인정받아 이번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學術院 회원 선출

黃壽永동문

▲黃壽永(73문화박사·도교前 총장) 동문은 지난 7월8일 열린 학술원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원으로 선출되었다.

市友會 會長

具滋春동문

▲具滋春(75대원·국회의원) 동문은 지난달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9회 서울시 市友會 정기총회에서 2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산업포장 수상

蔣東洛동문

▲蔣東洛(77정치·대한부역전홍공사 대전종합전시장 운영전담반 과장) 동문은 지난 8월2일 대전전계박람회에 진력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蔣동문은 재학시 범종불사 추진위원장으로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本會이사로 동문결속에도 소임을 다하고 있다.

美術大展 우수상

전종무동문

▲전종무(85미술·도교미술학과강사) 동문은 작품 '황후의 밤, 결인의 친'으로 제1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구상계열) 조각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移轉·開業

▲이시우(93영문) 동문은 지난 8월28일 강동구 천호동에 종로로 코드직매장(뮤직갤러리)을 개업했다.

▲유정일(63경영) 동문은 지난 9월9일 이조실업(주) 개업식을 가졌다.

▲임8구(80농생) 동문은 지난 19일 오후5시 의정부시에 서자비커피숍 개업(전화0351-871-8445)



結婚

▲신경림(57영문·本會부회장) = 9월11일 수운회관시장녀결혼.

▲신재호(61법학) = 9월10일 하림서장 장남결혼.

▲박낙원(61정치) = 10월8일 명동성당서 장녀결혼.

▲배종대(62철학) = 10월8일 하림각서 장남결혼.

▲권구영(63법학) = 10월22일 예당교회서 장녀결혼.

▲서석구(63법학) = 10월26일 고교문화회관서 차녀결혼.

▲김동원(63경제) = 9월3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장녀결혼.

▲이두세(63정치) = 9월26일 공항터미널서 차녀결혼.

▲김종오(65정치) = 10월2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장녀결혼.

▲최규칠(66정치) = 10월25일 날서울웨딩홀서 장녀결혼.

▲조규(77경원) = 10월26일 호텔뉴월드에서 차남결혼.

금 훈식

▲김승웅(72경영) = 9월30일 롯데월드서 부모금훈식



李相直동문 별세

▲李相直(54경제) 本會지도위원회원이 지난 11월 10일 꿩남동 종양병원에서 별세했다.

이경통상(주) 대표이사에 재직중이며 李지도위원은 국학대학교교수, 고교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수석이사, 산업합리화운동본부 서무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노교발전과 공장의 활성화를 위해 열성적인 활동을 해 왔다.

劉基天동문 별세

▲劉基天(70行碩) 동문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劉동문은 산림청차장,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김재홍(60경제) = 9월3일 모친상.

▲김규진(67사학) = 9월1일 별세.

▲김사성(73구교) = 10월26일 모친상.

▲심희만(78연영) = 9월23일 모친상.

나리를 사랑하고 자연을 생각하며

인간을 존중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곳!



주식회사

정방종합건설

주식회사

정방주택

연방, 크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金海秀(67·정치)

서울사무실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8 (금광 B/D 6층)

TEL : (02) 540-6088

FAX : (02) 540-6089

사 업 안내

- 토목·건축 공사업
- 포장·조경·철강재 설치공사
- 주택 및 택지 조성 사업
- 전기 및 소방공사 · 굴재 채취업
- 환경공사업 일체 · 군납업
- 통나무 주택시용, 통나무 자재 및 목조가공공장
- 이문시장

본사 :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봉남리 309-1

TEL : (0333) 63-4693

FAX : (0333) 63-4663

신문방송 등 7개 학과 신설

서울캠퍼스…신문방송·광고·전산과학·중어중문학과
경주캠퍼스…국악·사회체육·국제관계학과 인가받아

1995학년도 모교 입학정원
이 7개학과 신설과 9개학과의
증원으로 94학년도 보다 430
명이 늘어난 총 4천8백명으로
확정되었다.

지난해 보다 280명이 증원
된 서울캠퍼스는 이간강좌에
증어증문학과(50명), 전산학
과(50명), 신문방송학과(50
명), 광고학과(50명) 등 4개학
과가 신설되었으며, 광파대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건
축공학과, 식품공학과 등 4개
학과는 각각 20명씩 증원되었
다.

또한 경주캠퍼스는 국어과
(50명), 사회체육학과(40명),
국제관계학과(40명) 등 3개학
과가 신설되었고, 아간강좌
관광경영학과가 20명이 증원
되어 총 150명이 늘어났다.

서울캠퍼스 농과대학은 생
명지원과학대학으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농과학과가 식물자
원학과로, 농업생물학과가 응
용생물학과로, 농업경제학과

가 생명지원경제학과로 개칭
되었으며, 약간강의 전산통계
학과는 통계학과로 바뀌었다.

한편 전문대학원에 문화예
술대학원이 신설된다. 문화예
술대학원의 신설은 지난 10월
21일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문
예창작학과, 연극영화학과,
불교예술문화학과 등 3개학과
에 70명의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이외의 대학원 학생정원 조
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대학
원 전자계산학과 석사과정에
20명이 증원됐고, 교육대학원
에 중국어교육학과, 행정대학
원에 북한교육학과와 지방자
치학과, 정보산학대학원에 광
고홍보학과, 지역개발대학원
에 지역경제학과가 각각 신설
됐다.

또한 불교대학원의 불교사
학과가 불교사회복지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정보산
학대학원의 정보전산학과가
정보관리학과와 전자계산학과

로 분리된다.

총4천8백명 선발, 1월 9일 논술 및 면접

95학년도 입시요강 확정

95학년도 모교 신입생선발
전형일자가 내년 1월 9일로 확
정됐다.

서울 2천8백50명, 경주 1천
9백50명 등 총 4천8백명을 선
발하게 되는 95학년도 입시요
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특차모집=△원서접수 :

94. 12. 26~27 △면접고사 :

94. 12. 29 △모집정원 모집
학과정원의 10% △지원자
격: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전국순위 상위 6%이내자(단,
한의예과, 의예과는 상위2%)

△전형방법: 고교교내신성적(40
%) + 대학수학능력시험(60%)
등이다.

▲전기모집 △원서접수 :

95. 1. 2~1. 4 △입시일자 :

원광대와 학술교류

국내대학과는 最初

모교는 지난 7월 22일 국내
대학과는 처음으로 원광대(총
장=김삼룡·56불교)와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기본협정내용은 연구자(전
임교원·연구원)·학생(학부
생, 대학원생)·학술정보·학
술자료·학술정기행사를 교
환과 공동연구계획, 상호시설
의 제공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
은 앞으로의 교류를 통해서 가
시화할 예정이다.

이번의 교류협정체결은 상
호대학 종합평가(사회봉사영
역, 대외협동 학목) 중 국내대
학간 협력조성(대비)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학문
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인다.

초재산 12億원 모교 기증

本會선 東國人의 밤에 초청

張乃順 할머니

7旬의 한 할머니가 같은 고
생꼴에 평생을 모은 12억원의
재산을 모교의 유행기금으로
기탁해 감동을 주고 있다.

성종(성복구 소재)의 혜성
스님과의 상의끝에 자신이 살
고있는 10평짜리 연립을 빼 전
재산을 기증한 것인데 이 소식
을 들은 黃明惠 회장의 지시로
본회선은 오는 12월20일 東國
인의 밤에 張 할머니를 초청해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신군 영인면 신운리 산6 임야
4천평(식가 12억원)을 교육시
설을 세우는데 써 달리며 지난
18일 모교에 기증한 것.

평소 택시한번 타지 않고
여쭤스레 살아온 張 할머니는
水月庵(성복구 소재)의 혜성
스님과의 상의끝에 자신이 살
고있는 10평짜리 연립을 빼 전
재산을 기증한 것인데 이 소식
을 들은 黃明惠 회장의 지시로
본회선은 오는 12월20일 東國
인의 밤에 张 할머니를 초청해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中國 중앙희극학원과 자매결연

모교 예술대학은 지난 7월
29일 중국중앙희극학원과 학
술·공연교류협정을 내용으로
하는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모교는
총 10개의 해외대학과 자매결
연을 맺게 되었다.

인천지역에 한방의료始作

지난 7월 모교 인천 길병원 개원

어 3번째 한방병원을 운영하
세 되었다.

東國人 가족음악회

'동국인 가족음악회'가 지난
달 15일 本會후원으로 모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달 8일부터 민족무예대제전으
로 막을 올린 중구예술제의 일
환으로 열린 이 행사는 이태범
(철학·재학자) 군이 충연출을
맡았으며, 서울 뉴필하모니오
케스트라, 이동원, 박인수,
신현우, 노래마을, 조동진,
김원중 등이 출연했다.

'93 후기 졸업식

9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이 지난 8월24일 오전10시부
터 모교 중강당과 경주캠퍼스
소강당에서 각각 거행되었다.

이번 수여식을 통해 서울
및 경주캠퍼스 박사33명, 석
사2백49명, 연구원리자과정2
백46명 등 총4백 73명의 졸업
생이 배출되었다.

불교경련 DB化 국제화의 개최

세계의 석학들 참가해 열띤 토의

閔丙天(58대원) 모교총장
주최 불교경련데이터베이스화
를 위한 국제회의 측면연이 3
일 정오 서울 소피텔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불교 및 인문과학적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장비'를 주제
로 국내에서는 처음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美켈리포니아주립대의
루이스 랭커스터 교수를 비롯
해 美켈리포니아주립대교수,
스터버그 매든 일리노이
주립대교수, 존 래흐먼 일리노이
스카립대교수, 莊德明 대만
중앙연구원, 수과차이 텅

산, 티왕사황, 프라다마피티카
타이방록 마이클대학교수, 프
랭크 테드스코 메릴랜드대교
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閔총장은 지난달 9일
세종문화대강당에서 열린 제
548회 한글날 기념식에서 '94
세종문화상'(국방안보)을 수상
했다.

이 상은 국방안보분야에 발
전을 기하고 관련학문 전통에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게 시상하는 것으로 최근 5년
간의 공적을 치하하는 상이
다.

교류를 통해 서로의 학제적
교류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세종문화대와 함께
국내외 학제적 교류를 확장
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또한 특수진료시설로 종종
비만, 관절염, 산후, 허약아,
체질의학, 유통, 금주클리닉
을 도입운영한다.

한편 이번 인천 길병원내
동국한방병원개원으로 모교는

경주, 서울 방배동병원에 이

馬井農產·瑞農園

代表社長 申佑澈 (66 歲)

東國大學校政治外交學科同窓會首席副會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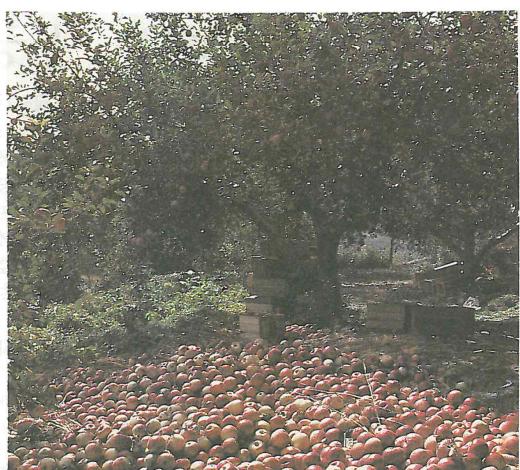
본사 서울特別市 中區 南大門路 4街 20-59

TEL : (02) 752-7544 FAX : (02) 752-7644

공장 충남 천원군 직신면 마정리 산24-1

충남 천원군 목천면 운전리 신35-2

TEL : (0417) 64-2633



사상 첫 文化사업 무난한 '成功'

구자선 부회장 1천만원 약정해

장학재단 設立후 全동문이 키워나가야



▲ 사진은 공연직후 출연진들의 기념촬영 모습

본회의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 마련 목적으로 전국대학창학회사상 최초의 공연이 베트남 창극 '하늘에 핀 녹두꽃'이 성공리에 마감됐다.

지난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개최된 창극공연은 잡정주제 2억 2,800여만원의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기존의 장학기금과 함께 장학재단의 설립기금과 될 제원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수동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본회가 능동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그 활동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동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속원사업이었던 장학재단의 설립을 기시작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과시했다.

또한 명창 안숙선씨의 착창과 심희만(77연영) 동문을 비롯한 스탭의 열성적 노력, 명창 윤희진씨를 비롯한 72명의 전출연진이 혼신의 연기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음을 국가의 해를 맞아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또 다른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공연에 있어 황명수총동창회장의 혼신적 노력을 낭달랐다.

대한항공공동 국내유수 기업의 협찬을 유도하고 출연진과

스탭들을 공연전에 모두 만찬 회에 초대, 공연의 침표를 이 해시키고 열성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황명수회장 스스로 공약한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해 시종 출연수법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동문들로부터 친정한 동국정신을 느끼게 했다.

짧은 준비기간에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만한 성과는 낼수있었음은 역시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가능한 것이다.

구자선부회장(81경원·태우 주택 대표)이 공연 관람후 즉석에서 1천만원을 약정하는가 하면 연출자인 심희만(77연 영) 동문이 5백만원을 재단설립후원금으로 쾌척했으며 많은 동문이 후원금을 사무국으로 전달했다(명단참조).

이에따른 제반 준비사항도 착착 진행돼 정관을 마련하고 설립발기인을 선임하는 등 내년초면 동국대학교총동창회 동우장학회(東友獎學會)의 출범이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문화사업

○…본회가 마련한 창극 '하늘에 핀 녹두꽃'은 여러 층 면에서 고무적인 행사로 평가 받았다.

우선 동문들의 회비수납이 주요재원인 상황하에서 동창

회 사무국이 스스로 수익사업을 벌인 능동적 자세변화이 그 첫째이고 전국 대학동창회사상 최초로 시행한 문화이벤트 사업이라는 것이 두번째 의의.

결국 끝을 뛰는 동국인 못지않게 노력하는 사무국의 인상을 심어준 것만도 큰 수확이라는게 중증.

일등공신은 黃회장

○…이번 공연에서 가장 큰 공은 아무래도 본회 황명수 회장에게 돌아가야 할 듯.

한털여의 준비라는 짧은 시간속에 홍보, 기획등 제반여건이 축박한 가운데서도 모든 공식일정을 통행회 다음으로 돌리며 각협찬사의 협조를 구해 약 4억여원의 협찬을 끌어낸 것.

물론 그중에서도 이철홍 본회 감사(대한항공유관공사 사장)의 헌신적 봄비를 수없고 무대위에서 땀흘린 출연진과 스탭들의 노력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모든것을 뒷받침한 황회장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東國發展 너나았다

○…동국발전에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도교에는 공연기간이 끝난후에도 더듬없이 많은 동문들이 기습 풍물했다고.

공연 첫 날 구자선부회장이 리셉션장에서 1천만원의 후원금을 약정하자 많은 동문들이 주머니돈을 털어 후원금을 쾌척하거나 약정한 것.

이어 공연이 끝난후에는 연출을 맡았던 심희만동문(서울시립 기무단 상임연출지도위원)이 5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거지지않는 모교에를 과시했다.

<재단설립 후원금 납부자>
 ■심희만(77연영·서립가부단 상임연출위원) = 500만원
 류 대표 = 20만원

창극 하늘에 핀 녹두꽃 수지결산표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협찬금(8개사)	377,272,727	출연료(72명)	47,800,000
티켓판매 수입	17,562,750	스텝료	30,000,000
공연 후원금(동문)	16,950,000	지급수수료	70,500,000
이자 수입	481,046	홍보비	5,100,000
부가세 환급금	5,863,100	대관료	7,500,000
공연후원금 미수금	11,700,000	연습비	4,000,000
		식 대	7,300,000
		도서인쇄비	6,659,270
		재세공과금	7,513,865
		진행경비	14,980,515
총 계	429,829,623	총 계	201,353,650
		잔 액	228,475,973

* 협찬 8개사는 대한항공, 유공, 한화그룹, 한보그룹, 대우, 진로, 현대자동차(이상 총 5천만원)과 조선맥주(2천7백만원) 등 8개사입니다.

▲ 이석용(58정의·손해보험협회 회장) = 150만원

▲ 김창규(84법·변호사) = 100만원

▲ 이종진(59정문·하지공업주대표이사) = 100만원

▲ 박연백(71행정·성봉토건주대표이사) = 100만원

▲ 심수근(92행운·주)·정승전기(대표이사) = 100만원

▲ 조정환(49사학)·남도산업주대표이사) = 100만원

▲ 김승재(68상학·보험개발원장) = 50만원

▲ 조 규(77경원·외교양행대표) = 30만원

▲ 김윤득(93행원·주)·한국뉴미션 대표이사) = 30만원

▲ 홍사현(63사학·한미중기 대표) = 30만원

▲ 김재진(63경계)·고속도로시설공단 사장) = 30만원

▲ 유순이(60정의·협상카프리자 대표) = 30만원

▲ 김해수(67정의·정방종합건설 회장) = 20만원

▲ 신진구(59불교·봉화산청소년수련원장) = 20만원

▲ 양정오(81행운·다우통상주대표이사) = 20만원

▲ 김오현(80체교·주)·위해대표이사) = 20만원

▲ 박영환(49문학·세종화랑 대표) = 20만원

▲ 김종태(60국문·성남 당시구청장) = 20만원

▲ 김동길(61경제·유신토건주대표이사) = 20만원

▲ 서석구(63법·금강종합건설주대표이사) = 20만원

▲ 단창오(75행원·진양주류 대표) = 20만원

▲ 이기화(59정제·모교감사) = 10만원

▲ 이순용(58법·교수회장) = 10만원

▲ 오진호(61법·강원개발연구원 원장) = 10만원

▲ 이성호(·동우천 시청) = 10만원

▲ 김인홍(75대원)·교묘의원장) = 10만원

▲ 박의주(61정의)·본회상임부회장) = 10만원

▲ 김태진(61법)·농장경영 10만원

▲ 김낙천(81행원)·고려원 대표) = 10만원

▲ 정재기(68정의)·용마유동주장무이사) = 10만원

▲ 홍석교(65정의)·한국테프론 공업주대표이사) = 10만원

▲ 유부성(63농생·동국기획주 회장) = 10만원

▲ 김태연(A&T) = 5만원

▲ 김재국(61경제·강남고려병원이사장) = 10만원

▲ 방조원(78행원·금원상사 대표) = 10만원

<재단설립 후원악점자>

▲ 구자선(81경원)·태우주택 대표이사) = 1,000만원

▲ 조성운(56경제)·IRC대표이사) = 50만원

▲ 윤천영(66농학)·LP가스공업협회 전무) = 50만원

▲ 박은규(61정의)·대동철강주대표이사) = 30만원

▲ 안철원(52경제)·동이그룹(고문) 30만원

▲ 박원일(61불교)·민자당 은평을 지구 당위원장) = 10만원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

우리는 의약품 유통의 일원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하여

신용과 질서를 중시하는 깨끗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신성약품주식회사

代表理事 金 鎮 文 (71 경영)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26-6

대표전화 : 244-4119 FAX : 245-5076



<당사 신사옥 조감도>

강·남·폐·선·1·번·지

그랜드

내 집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그랜드백화점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족이 쓸 물건을 고르듯
정성껏 상품을 선택하는 마음—
바로, 그랜드 바이어들의 마음입니다.

고객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미소로 도와드리려는 마음—
바로, 그랜드 판매사원들의 마음입니다.

내 집처럼 편안한 백화점—
그랜드가 꿈꾸는 백화점입니다.



• 그랜드백화점 본점



• 신촌그랜드

94년 5월 신촌그랜드 오픈
95년 2월 본점 새단장에 이어
96년 3월 등촌동 그랜드-마트 오픈
96년에는 일산점 개점 등으로
더욱 가깝고 편안하게 만나뵙겠습니다.

그랜드백화점
GRAND DEPARTMENT STORE
대표전화 ☎ 553-0101 신촌그랜드 ☎ 326-0101